

助詞 ‘가/이’의 意味分析

李 弼 永*

I.

주격조사 ‘가’는 전통적으로 文法的 意味만을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 수 편의 논문을 통하여 그것이 意味論的 意味(Semantical meaning)도 지니고 있음이 논의된 바 있다.¹⁾ 그 대표적인 例가 申昌淳(1975)과 Kuno(1973)이다. 韓國語의 주격조사체제와 유사한 日本語를 다룬 Kuno(1973: 49-59)에서는 주격조사 ‘が’를 中立的 記述(neutral-description)과 排他的 對立(exhaustive-listing)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²⁾ 서술부가 動作動詞·存在動詞 또는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는 形容詞일 경우, 主語의 ‘가’는 中立的 記述을 하게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排他的 對立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國語의 主語問題를 다룬 申昌淳(1975)에서는 指定叙述과 選擇指定이라는 두 가지 ‘가’의 용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정 서술은 대화의 場에서 직접 감각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선택지정은 제시된 여럿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이 양자는 모두 ‘지정’이란 의미를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몇 가지 조건들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 몇 가지 조건들이 결국은 하나의 결정적 요건 즉 서술부의 문맥적 전제여부(신창순(1975)에서 제시한 3번째 조건)에 귀결될 것이라고 생

* 國文學科 同門(國語學) 專攻

1) 조사 ‘가’와 ‘이’는 音韻論的으로 조건된 이형태들이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가’로 대표하고자 한다.

2) ‘메타적 대립’이란 용어는 임흥빈(1972)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Kuno(1973)의 ‘exhaustive listing’의 개념과 아주 가까운 것이다.

각한다.³⁾

本稿는 이상과 같은 조사 ‘가’의 의미에 대한 二分法的 說明을 토대로 하여 그 분류기준이 전혀 문맥적 활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주어 이외의 다른 성분들에 연결된 ‘가’의 의미들에 대하여도 보편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2·3장에서는 주격조사 ‘가’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가’가 본래부터 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조사생략 현상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정의 의미는 다시 문맥적 활용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제4·5장에서는 주어 이외의 성분에 나타난 ‘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가’는 주로 屬格 및 處格助詞와 교체되는데 이때 교체된 ‘가’ 역시 지정과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이처럼 교체된 ‘가’가 과연 話題(Topic)助詞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 볼 것이다.

II.

본장에서는 ‘가’가 지정의 의미를 지니는 사실에 대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國語에서 문장이 아주 단순한 主述關係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 (1) a. 어머니 오셨다.
b. 어머니가 오셨다.
(2) a. 달 밝다.
b. 달이 밝다.

(1), (2)의 각 a는 b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며, b는 주어를 강하게 指定하여 말하고자 할 때 쓰이는 표현이 된다.⁴⁾

3) 신창순(1975: 140~141)을 참고한 것.

4) 안병희(1966)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위하여 不定格이라는 새로운 格體系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관계관형화된 내포문에서는 주문에서보다 조사 ‘가’의 생략이 쉽게 일어난다.

- (3) a. *숲에서 종달새 지저귀다.
- b. 숲에서 종달새가 지저귀다.
- c. 종달새 지저귀는 숲
- d. 종달새가 지저귀는 숲

(3c), (3d)는 (3b)가 관계관형화된 것이다. (3a)와 (3c)를 비교해 볼 때 조사 ‘가’의 생략은 主文보다 內包文에서 더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포문에서도 주어를 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를 생략하지 않는다.

- (4) a. 우리는 종달새 지저귀는 숲으로 갔다.
- b. 우리는 종달새가 지저귀는 숲으로 갔다.

(4a), (4b)는 모두 ‘우리는 숲으로 갔는데 숲에는 늘 종달새가 지저귀고 있다’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그 밖에 (4b)에서는 ‘우리는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종달새가 많이 살고있는 숲을 찾아갔다’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4b)의 내포문에서의 ‘가’는 ‘종달새’를 특히 지정하기 위하여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가’가 문법적 기능 외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그것이 생략됨으로써 의미변화가 생기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5) a. 누구든지 (목마른, ??목이 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 b. 내가 한참 (??목마른, 목이 마른) 순간에 그녀가 물을 주었다.
- (6) a. 나는 그런 (여자우는, *여자가 우는) 소리는 질색이다.
- b. (*여자우는, 여자가 우는) 일은 매우 흔하다.
- (7) a. 영수는 (책없이) 학교에 다닌다.
- b. 영수는 (책이 없이) 학교에 다닌다.

(5)~(7)의 각 a의 괄호 안의 의미는 b의 것들로부터 轉化된 것이다.

즉 (5a)에서는 심리적 혹은 영혼의 갈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데 반하여 (5b)는 육체적 갈등 즉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지시하고 있다. (6a)의 ‘여자우는 소리’는 반드시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라도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여자’를 지정하게 될 ‘가’를 생략하여 쓴 것이다. 한편 (6b)에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기에 ‘가’를 생략하지 않았다. (7a)는 단순히 책이 없다는 사실만을 말하기보다는 책을 살 여유가 없이 공부하고 있음을, (7b)는 책을 안 가지고 학교에 다닐을 각각 지시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변화의 원인은 ‘가’가 문법적 기능 외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의미는 곧 指定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는 그것이 지정한 語辭의 위치에 따라 기능을 달리한다.

- (8) a. 이리로 버스가 온다.
b. 버스가 이리로 온다.

(8a)는 文頭의 ‘이리로’에, (8b)는 文頭의 ‘버스가’에 각각 청자의 최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최초 관심은 다시 문장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간다. 이는 곧 (8a)의 ‘이리로’와 (8b)의 ‘버스가’가 각각 그 문장의 서술내용의 적용범위를 한정내지는 지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文頭에서 지정된 어사는 문장서술내용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8a)의 ‘버스가’와 같이 文中에서 지정된 어사는 그러한 기능을 갖지 못한다.

III.

본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가’의 지정의 의미가 文脈的 活用に 따라 2가지 의미로 나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例文

을 통해서 문장형태는 동일하면서도, 그 지시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된다.

(9) 하늘이 푸르다(구나).

(10) a. 무엇이 푸른가?

b. 하늘이 푸르다.

즉 (9)는 화자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으로서, 문맥상 아무런 전제가 없이 쓰이는 데 비해서, (10b)는 (10a)를 통하여 서술부 ‘푸르다’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푸른 것은 곧 하늘임을 선택하여 말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주어는 ‘하늘’에 대하여 중립적 지시를, 후자에서는 선택적 지시를 하고 있다. 다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 a. 무슨 일이나?

b. 꽃병이 깨졌다.

(12) a. 무엇이 깨졌는가?

b. 꽃병이 깨졌다.

c. 꽃병(이)

(11b)는 새로운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그 주어는 중립적 지시를 하지만, (12b)는 ‘무엇인가 깨졌다’고 이미 전제되었으므로 그 주어는 선택적 지시를 하며 서술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여 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2b)는 (12c)로 바꾸어 쓸 수 있다.⁵⁾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지시방법은 ‘가’의 두 가지 의미에 연결된다. 즉 중립적 지시를 하는 주어의 ‘가’는 그대로 指定의 의미만을 지니며, 선택적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指定의 의미 외에 選擇이라는 의미까지 포괄한다. 우리는 이 후자의 경우를 선택지정의 의미라고 부르고자 한다.

5) 이미 알려진 사실들은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편 반드시 서술부 내용을 전제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⁶⁾

(13) 복동이가 학생이다.

(13)은 반드시 ‘누가 학생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13)의 주격조사 ‘가’는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상의 질문과 같은 전제가 없었다면 (13)은 (14)와 같은 표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14) 복동이는 학생이다.

IV.

우리는 앞에서 주격조사 ‘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조사 ‘가’가 屬格助詞 ‘의’나 處格助詞 ‘에’와 교체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두 개의 명사가 조사 ‘의’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를 속격구조라고 한다. 속격구조 중에는 소유관계를 지시하는 명사구들이 있는데, 이 소유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 ‘영회의 눈’과 같이 소유의 주체인 ‘영회’와 객체인 ‘눈’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영회의 치마’에서와 같이 상호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전자를 非分

6) 문장의 지시내용이 일반적·지속적·관념적·추상적일 때는 문맥상 그 서술부가 쉽게 전제되는 반면에, 특정적, 순간적, 구체적, 현실적일 때는 쉽게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니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정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가령 다음의 예문에서

i) 벌이 부지런한 곤충이다.

ii) 벌이 꿀을 만들고 있구나,

i)의 지시내용은 일반적 사실에 속하므로 주격조사가 선택지정의 의미불,

ii)의 것은 특정적 사실이므로 지정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離的 所有關係, 후자를 分離的 所有關係라 부르기로 한다.” 이 分離·非分離的 關係는 조사 ‘의’와 다른 조사들(‘물’, ‘가’ 등)과의 교체 가능성이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즉 비분리적 소유관계의 ‘의’는 쉽게 교체가 되나, 분리적 소유관계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 (15) a. 영수가 영희의 치마를 찢었어요.
 b. *영수가 영희를 치마를 찢었어요.
 (16) a. 영희의 어머니가 저기 오신다.
 b. *영희가 어머니가 저기 오신다.
 (17) a. 철수가 영희의 눈을 때렸다.
 b. 철수가 영희를 눈을 때렸다.
 (18) a. 영희의 마음이 무척 아픈가보다.
 b. 영희가 마음이 무척 아픈가보다.

(15), (16)의 속격구조는 분리적 관계를, (17), (18)은 비분리적 관계를 지시한다. 이때 전자에서는 조사 ‘의’와 다른 조사들과의 교체가 불가능하나, 후자에서는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본고의 목적상 주어가 되는 속격구조만을 살핌으로써, 주격조사 ‘가’의 의미와 교체된 조사의 그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장에서 설명했듯이 주격조사 ‘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주격조사 ‘가’가 지정의 의미를 지니는 예들을 살펴 보자.

- (19) a. 소의 뿔이 부러졌구나.
 b. 소가 뿔이 부러졌구나.
 (20) a. 영희의 동생이 다쳤다.
 b. *영희가 동생이 다쳤다.

(19a), (20a)의 ‘소의 뿔’, ‘영희의 동생’은 각각 비분리적·분리적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구들인 까닭에 전자에서는 조사의 교체가 가능하나 후자는 불가능하다.⁷⁾ 그런데 (19a)의 주격조사가 지정의 의미를

7) 임흥빈(1972: 61)을 참조할 것.

지니는 이유에 대하여는 이미 3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때 교체된(19b)의 ‘소가’의 조사 ‘가’도 역시 지정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19b)의 ‘소가’는 뒤의 서술내용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는 주격조사 ‘가’가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니는 예들을 살펴본다. 물론 이때는 서술부의 내용이 문맥상 전제되어야만 한다.

- (21) a. 순희의 마음이 약하다.
 b. 순희가 마음이 약하다.
 (22) a. 철수의 시계가 비싸다.
 b. *철수가 시계가 비싸다.

(21a), (22a)의 주어명사구는 모두 ‘누구의 마음’, ‘누구의 시계’라는 것을 선택하여 지시한 것이므로 이때의 주격조사는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전자는 비분리적 소유관계, 후자는 분리적 소유관계를 지시하는 까닭에 전자에서만 조사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때 교체된 (21b)는 (23)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만 쓰이므로 교체된 ‘순희가’의 ‘가’도 역시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닌다.

(23) 누가 마음이 약한가?

이상에서 살펴본 예들의 교체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NP_1 의 NP_2 가 (지정) P(redicate)→

NP_1 가 (지정) NP_2 가 P

- 8) 분리적 소유관계의 속격구조에서도 간혹 조사가 교체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곧 조사가 교체된 명사구와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의미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때에 한한다.
- i) 영희의 옷이 다 찢어졌구나.
 ii) 영희가 옷이 다 찢어졌구나.
- i)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영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다 찢어졌다’는 의미와 둘째 ‘영희가 현재 입고 있지는 않지만 소유하고 있는 옷이 다 찢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ii)로 될 수 있는 것은 첫째의 의미로 해석했을 경우이다. 이에 대한 것은 채완(1977) 참조.

NP₁의 NP₂가 (선택지정) P→

NP₁가 (선택지정) NP₂가 P⁹⁾

즉, 주격조사 '가'가 지녔던 지정 혹은 선택지정의 의미는 속격구조 내에서 교체된 조사 '가'에로 전이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처격조사 '에' 또는 '에게'가 조사 '가'에 의하여 대치되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4) a. 달걀에 영양가가 많다.

b. 달걀이 영양가가 많다.

(25) a. 꽃에 벌레가 생겼다.

b. 꽃이 벌레가 생겼다.

(24b)는 반드시 '무엇이 영양가가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만 쓰이는 문장이므로 그 서술부의 내용은 문맥상 전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24b)의 교체된 조사 '가'는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25b)의 지시내용은 화자가 직접 벌레가 생긴 꽃을 보고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서술부는 문맥상 전제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25b)의 교체된 조사 '가'는 지정의 의미를 갖는다.¹⁰⁾

이상에서 우리는 주격조사 '가'의 의미들이 속격조사나 처격조사에 대치된 조사 '가'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V.

본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조사 '가'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話題(Topic)의 문제를 再究明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화제에 관한 연구들이 지닌 문제점은 話題(Topic)와 촛점

9) 'NP₁가 NP₂가'에서 둘째의 '가'는 모두 지정의 의미를 갖는다.

10) 이때 만일 (25b)의 서술부를 질문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전제했었다면 '꽃이'의 '이'는 선택지정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Focus)의 구별을 모호하게 했던 점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을 화제(Topic)—평언(Comment),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 전제(Presupposition)—촛점(Focus)등의 구조로 파악했을 때, 전자에 속한 것들이 곧 화제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의 어떤 성분이 화제인 동시에 촛점이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6) 울릉도가 항상 눈이 많이 내린다.

(26)의 서술부는 ‘많이 내린다’이고 그것의 의미상 주체는 ‘울릉도’가 아닌 ‘눈’이다. 이 경우 ‘울릉도’를 화제로 간주하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26)은 그 이전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쓰일 수 있는 문장이므로 문맥상 (26)의 서술부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다. 따라서 (26)의 ‘울릉도가’는 선택적 지시를 하는 동시에 문장의 촛점이 된다. 그러므로 (26)의 ‘울릉도가’를 화제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택지정의 명사구는 문장의 촛점이 되는 까닭에 화제가 될 수 없지만 지정의 명사구는 그렇지 않다. 화제의 기능은 서술어가 적용되는 영역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하고 또 서술어가 적용되는 개체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앞서 논의한 文頭의 지정의 어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7) 울릉도가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27)의 주어는 물론 ‘눈이’가 될 것이고 ‘울릉도가’는 지정의 명사구로서 현재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을 공간적으로 제한해 주고 있다. 따라서 文頭의 지정의 명사구는 화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

11) 여기서 말하는 문두 지정의 명사구는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을 가리킨다.

이상의 예들을 통하여 지정의 조사 '가'는 화제조사가 될 수 있지만, 선택지정의 '가'는 불가함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조사 '가'와 '는'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에 공통되는 화제조사의 특징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화제가 항상 文頭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28) a. 아버지께서 선물은 사 오셨다.
 b. 선물은 아버지께서 사 오셨다.

(28a)의 '선물은'은 문장의 중간에서 대조적으로 쓰이는 데 반하여, (28b)의 것은 文頭에서 화제 또는 대조적 명사구가 된다. 다시 말해서 대조조사 '는'은 문장중의 어느 위치에나 놓일 수 있지만, 화제조사 '는'은 문두에서만 쓰인다.

한편 조사 '가'는 어떠한가?

- (29) a. 우체국이 지금 막 불이 붙었다.
 b. *불이 지금 막 우체국이 붙었다.
 (30) a. 복동이가 손목이 부러졌다.
 b. 손목은 복동이가 부러졌다.
 (31) a. 산정이 밥해먹기가 제일 어렵다.
 b. 밥해먹기는 산정이 제일 어렵다.

(29a), (30a)의 서술부는 문맥상 전제되지 않고 쓰일 수 있으므로, '우체국이'와 '복동이가'의 조사 '가'는 지정의 의미를 지닌다.¹²⁾ 그런데 이 지정의 명사구들이 文中에 놓이게 되면 비문법적 문장이 되거나 ((29b)), 선택지정의 명사구로 바뀌고 만다((30b)), 그 이유는 (30a)가 반드시 '손목은 누가 부러졌는가?'하는 질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31)은 모두 '어디가 밥해먹기가 제일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전제하여 쓰이기 때문에 '산정이'는 선택지정의 명사구가 되는 동시에 문

12) (30a)가 만일 '누가 손목이 부러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다면, (30a)의 '복동이가'는 선택적 지시를 하게 될 것이다.

두·문중 어디서나 쓰이고 있다. ((31a), (31b)) 이상에서 지정의 ‘가’는 화제조사 ‘는’과 같이 文頭에만 쓰이며, 선택지정의 ‘가’는 대조조사 ‘는’과 마찬가지로 문두·문중 어디서나 쓰임을 알게 되었다.¹³⁾

다음으로, 조사 ‘가’와 ‘는’의 각각의 두가지 용법이 지나는 의미적 상관성이 否定變形을 통해서도 높게 나타남을 지적할 수 있다.

- (32) a. 그 연필은 필통에 들어 있다.
 b. 그 연필은 필통에 들어 있지 않다.
 (33) a. 필통에 그 연필은 들어 있다.
 b. 필통에 그 연필은 들어 있지 않다.

(32a)의 ‘그 연필’은 화제로서 ‘그 연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데 반하여, (33a)의 것은 대조적 명사구로서 ‘그 연필’ 이외의 다른 연필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즉 (32a)는 다른 연필에 대해서는 모르고 다만 그 연필이 필통에 들어 있음을, (33a)는 ‘그 연필’만은 필통에 들어 있지만 다른 연필은 들어 있지 않음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32a)를 부정한 (32b)의 ‘않다’는 ‘그 연필이 필통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체부정하는 데 반하여, (33b)에서는 ‘그 연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그 연필’ 이외의 다른 연필은 필통에 들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가’의 용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4) a. 철수가 나의 제자다.
 b. 철수가 나의 제자가 아니다.
 (35) a. 나는 철수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 나는 철수가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4a)와 (35a)의 내포문은 형태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상은 의미론적

13) 대조의 ‘는’과 선택지정의 ‘가’는 양자가 모두 강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한편 선택지정의 ‘가’와 지정의 ‘가’는 강세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것은 拙稿(1981 : 72)를 참조할 것.

의미의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철수만이 나의 제자임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주격조사는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35a)는 (36)의 첫째 문장이 둘째 문장의 ‘그 사실’에 내포되어 도출된 문장이다.

(36) 철수는 나의 제자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35a)의 내포문은 ‘철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의 ‘철수가’는 지정의 명사구가 된다. 그런데 (34a)를 부정한 (34b)가 철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철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제자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데 반하여, (35a)의 내포문을 부정한 (35b)의 내포문은 ‘철수가 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전체 부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부정변형에 대해서도 지정의 ‘가’는 화제의 ‘는’과 ((35)와 (32)), 선택지정의 ‘가’는 대조의 ‘는’과 ((34)와 (33)) 각각 동일한 의미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아 보았다.

VI.

지금까지 우리는 조사 ‘가’가 지정과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살펴 왔다. 이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로부터 얻은 성과를 요약해 봄으로써 本稿를 끝맺고자 한다.

(i) 2장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생략한 문장과 생략하지 않은 문장과를 비교함으로써 ‘가’가 본래부터 지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사생략 현상은 主文에서보다 관계관형화된 내포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주어명사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가’를 생략하지 않는다.

간혹 주격조사를 생략함으로써 본래의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가 결합하여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가령 ‘배가 부르다’라는 문장에

서 주격조사를 생략하여 ‘배부른 소리’와 같이 쓸 때는 본래의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

대개 문두에서 쓰이는 어사들이 그러하듯이 문두에서 지정의 조사 ‘가’에 의해 연결된 주어명사구는 서술부의 적용범위를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ii) 주격조사 ‘가’의 지정의 의미는 문맥적 활용에 따라 두 가지의 미로 나뉜다. 문맥적 활용이란 문장의 서술부 내용의 전제여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주격조사 ‘가’는 지정의 의미를, 서술부가 전제되었다면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

(iii) 조사 ‘가’는 주어 이외의 성분조사 즉 속격이나 처격조사 대신에 쓰이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조사 ‘가’는 문맥적 활용에 따라 지정과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닌다.

조사 ‘가’가 속격조사 ‘의’에 대치될 때는 제약이 따른다. 즉 속격조사 중에서도 소유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시 분리적·비분리적 소유관계로 나뉜다. 조사 ‘가’와 교체될 수 있는 조사는 바로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속격구조가 주어로 쓰일 경우, 주격조사 ‘가’의 의미는 속격조사와 교체된 조사 ‘가’에 전이됨을 살펴보았다.

(iv) 소위 2중주어문에 나타나는 첫번째의 ‘NP가’를 모두 화제로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NP가’ 중에 지정의 의미를 지닌 것은 화제가 될 수 있지만, 선택지정의 의미를 지닌 것은 촛점이 되는 까닭에 화제가 되지 못한다.

화제조사 ‘는’은 특징적으로 文頭에서만 쓰인다. 그러나 대조조사 ‘는’은 문장 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쓰일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 ‘가’의 두 가지 용법에 각각 대응한다. 즉 지정의 ‘가’는 화제조사 ‘는’에, 선택지정의 ‘가’는 대조조사 ‘는’에 각각 가깝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부정변형을 통해서도 또 한번 확인된다.

參 考 文 獻

- 高永根(1968), “主格助詞의 한 種類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 朴舜威(1970), “‘格文法’에 立脚한 國語의 ‘접主語’에 對한 考察”, 「語學研究」4-2.
- 서정수(1971),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구문론 연구」.
- 成光秀(1981), 「國語 助詞에 대한 研究」, 螢雪出版社.
- 申昌淳(1975), “國語의 「主語問題」研究”, 「문법연구」2.
- 安秉禧(1966), “不定格(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東亞文化」第6輯.
- 李翊燮(1973), “國語數量詞句의 統辭機能에 대하여”, 「語學研究」9-1.
- 李弼永(1981), “國語의 關係冠形節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48.
- 任洪彬(1972), “國語의 主題化 研究”, 「國語研究」28.
- 蔡 琬(1976), “助詞 ‘-는’의 意味”, 「國語學」4.
- _____ (1977), “現代國語 特殊助詞의 研究”, 「國語研究」39.
- _____ (1979), “話題의 意味”, 「冠岳語文研究」4.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Chafe, W.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 Li. (ed), *Subjects and Topic*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